

FDI 1994

제 82차 캐나다 밴쿠버 세계치과학회 (82nd World Dental Congress)에 다녀와서

고려대학교 교수 徐奎源

작년 81차 세계치과학회에서 연재를 발표하였던 적이 있는 본교실에서는 1년전부터 그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금번의 연재는 작년과 같은 맥락에서, 치과임프란트의 성공을 위한 실패원인을 규명하는 내용을 택하여 제출한 결과 발표연제로 채택되었음을 일찍 통보 받았다. 본교실의 대학원 과정중에 있는 전상원 원장, 연수회 2기생 출신인 정희웅 원장과 함께 학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치의신보에 대한치과협회에서 추천안내한 여행계획은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학회기간 중에 관광을 하게 되어 있어 학회장에 충실하길 원하고 하는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학회보다 관광이 주 목적인듯 생각될 수도 있었다.

우선 4박 5일 밴쿠버 관광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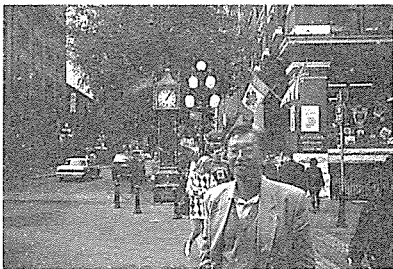


사진 1. 밴쿠버 시내에서
스팀으로 돌아가는 시계탑 앞에서

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나 동참하는 인원이 없어 차선책으로 5박 6일의 코스로 하기로 하고, 비용은 왕복여비와 밴쿠버, 밴프, 갈가리를 비롯한 특키산맥의 모든 관광비용 그리고 그동안의 숙식비 등이 모두 포함된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국제학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하여 참고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일단 자기계획에 알맞는 여행사 스케줄을 이용한 후, 귀국하는 비행기편만은 원하는 일시로 변경하고 그 나머지 일정은 본인이 해결할 수 있어야 여러가지로 편리하다. 도착 즉시 생기는 시간차 때문에 느끼는 불편이나 호텔까지 가는 동안의 모든 절차를 여행사가 해결하여 주므로 공식일정이 끝날때까지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으며 또한 이때쯤 되면 자연이 시차에 적응 되었기 때문에 학회참석시 훨씬 덜 피곤하다. 나머지 기간 동안의 숙소는 지난해처럼 유스호스텔로 정하였다. 우선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1만원 내외로 저렴하다. 그리고 그외의 편의 시설이용이 편리하고 대부분 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 애용하는 편이다. 아마 대학기숙사 같은 시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택시운전사는 어느 나라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운전사는 인도출신이었었는데 공항에서 유스호스텔까지 가는데 일부러 먼거리로 돌아가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게 하였고,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대기시간까지 포함하여 10여불이나 더 받으려 하였다가 동행한 정원장이 항의하자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범죄율이 낮고 안정된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학회시작 3일전에 도착하여 캐나다를 관광하기로 하였다. 밴쿠버 시내와 빅토리아섬의 관광보다는 유럽이나 동양에서 볼 수 없는 특키산맥이 장관이었고 공해가 없는 지역이어서 빙하를 비롯한 호수의 아름다움은 극치에 달하였다. 말로 듣기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말 뿐,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고 안내인은 말하고 있었다. 필자는 세계치과학회가 캐나다에서 열리기 때문에 방문하였지만 관광은 주목적이지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나 가볼만한 곳이라고 자신 있게 권하고 싶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가 학회기간이었다. 개최전날부터 한국식당에는 한국에서 오신 많은 치과 의사들을 만날수 있었다. 각각 별개의 단체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개회식에서 한국 호명시만 모이고...

관광을 갈지라도 일부는 남아서 한국에서 FDI개최
시 도움이 될 내용을 챙겨야...

수는 없었지만 50여분정도 되는 것 같았다.

연제를 발표하는 사람은 발표가 끝날 때까지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은 법이다. 필자는 발표장인 워터프론트호텔까지 미리 가보고 발표장소를 확인해 두었다. 그런데 발표시간이 코리안 런천을 하는 당일 10월 5일이고, 더군다나 런천이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필자의 발표시간은 2시 10분부터로, 런천에 참석도중 1시쯤 미리 빠져나와 발표준비를 하여야 하는 불편과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하였던 한국인의 연제에 한국치과의사들의 참석은 필자와 함께 동행한 교실원 외에는 한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섭섭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몇년후 세계치과학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한국 FDI 학술 안내책자의 학술발표분야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그 와중에 그나마 발표내용의 질문은 준비하던 동안의 피로가 가시고 준비한 조람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 와중에 그나마 발표내용인 임플란트의 실패요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두사람의 외국인의 질문은 준비하던 동안의 피로가 가시고 보람을 느끼게 해 주었다. 작년

에 이어 두번째 발표이고 내년 홍콩에서의 세계치과학회에 대비하여 발표인고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 필자로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참석자가 국제모임에 가서, 개회식날 한국을 호명할 때만 모이고 곧바로 관광만 하려고 하는 점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치과의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 지적하



사진 2. 학회장에서 연제발표후 질문에 응답하는 필자.

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관광을 갈지라고 일부는 남아서 회의도 성실히 참석하고 학술회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서울에서의 개최에 도움이 될 내용을 챙겨야 하지 않았을까.

캐나다에서의 체류중 몇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여 소개한다면, 그곳에서는 담배 한갑이 우리돈으로 4~5,000원 정도로 대단히 비싸다. 그리고 담배갑 곁에는 담배가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담배가 당신을 죽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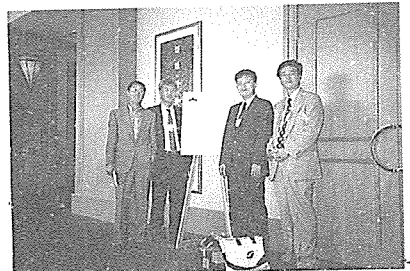


사진 3. 학회 발표장 앞에서

는 경구를 삽입하고, 그것도 담배 정면에 잘보이는 곳에 검정색 테를 둘러 강조하고 있었다. 담배값이 비싼 이유는 담배로 인하여 질병이 생긴 사람들이 의료비를 많이 소비하므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세금을 많이 붙여 흡연자가 담배를 비싸게 사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음주에 관한 문제인데, 어느 식당에서건 밖에서 가지고 온 술은 마실수 없고 비록 술을 남긴 경우에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한다. 개봉한 술병이 차안



사진 4. 코리안 런천에서

성실한 준비를하고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위하여 철저한 감독을하며 문제가 있을때는 엄격한 책임추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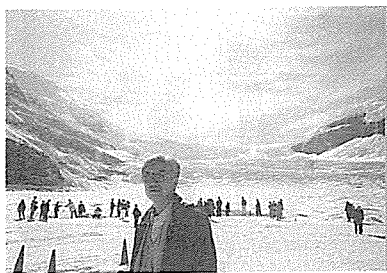


사진 5. 공해가 전혀 없다는 빙하지역에서

에서 발견되면 음주운전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술을 파는 상점도 주정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까다로운 법적 규제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차로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 지점을 지나가게 되었을때 일이다. 캐나다교민의 설명으로는 아직 튼튼하여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그 다리를 처음 건설하였을 때 안전사용기간을 50년으로 계획하였고 50년이 되었으므로 허물고 다시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며칠전 온 국민에게 큰 실망과 아픔을 안겨준 성수대교의 붕괴사고와 비교하면 어찌 이런 일이 다리 건설같은 곳에만 도사리고 있을까마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사고가 나면 우선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고, 자기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듯이 목청크게 비난만 하고 있으면

서 힘없는 몇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흐지부지하였던 경우가 몇번이 있는지 모른다. 과연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고 우리자신에게는 없는지? 성실한 준비를 하고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며 문제가 있을때는 엄격한 책임추궁을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서울 세계치과학회를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1997년을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캐나다는 일주일간의 학회를 통하여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신문에 발표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특별히 크게 실패한 것도 없는 평범한 학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며 특히 지난 4년간은 정신없이 바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준비는 어떠할까?

그리고 코리아 런전은 1만불이런 거금을 들여 250여명의 외국인을 초청 하였다고 한다. 준비위원회에서 잘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꼭 가장효과적인 홍보방법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하여 필자가 작년 스웨덴 세계치과학회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스웨덴 세계치과학회에서 개최당일 파티가 열렸는데 간단

한 스넥만 제공을 받아, 끝나고 너무 시장하여 저녁을 먹게 되어있다. 이를 두고 스웨덴의 한국교민 한분에게 등록금도 비싼데 잘 사는 나라가 한끼 식사도 제대로 주지않고 어떻게 그리 인색 할수 있는냐고 항의성 질문을 하였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여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곳 사람은 저녁식사로 한번에 없애 버리는 그런 낭비보다는 그돈을 절약해서 요긴한 곳에 사용 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한국보다 선진국이 되어있다고 설명하였기 이러한 점에 우리는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년째 국제위원으로 되어 있는 필자조차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때가 많다. 우리 치과분야에 종사하는 2만여명에게 많은 희망과 도움을 줄 이 절호의 기회를 위하여 차질없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1997년 서울 세계치과학회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듯, 엉망이 되어서는 안되고 혹 서로가 누구의 책임이라는 등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치과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캐나다 세계치과 학회를 다녀오면서 느끼게 되었다.